

문화광장



이한영 제주해녀문화보존회 회장·교육학 박사

3년 전 이맘 때 제주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주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그동안 거친 바다에서 묵묵히 그 전통의 명맥을 이어나온 제주해녀분들과 일관된 제주해녀 보존정책을 추진해 온 도정 그리고 제주도민의 성원과 온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얻은 결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었다. 어디 그뿐인가. 임법기관에서는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제주해녀를 위한 법안 통과에

해녀 vs 국회의원

합심해왔다. 세월은 정말 빠르다. 벌써 오는 11월 30일이 등재 3주년이 돼 여러 기관에서는 이를 기념한 제주해녀 세미나와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일련의 행사들이 지금까지 제주해녀에 대한 정책이 나아가길 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간 점검해 더 큰 미래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에는 이러한 세미나와 토론회에 제주해녀분들을 토론회나 발표자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제주해녀를 단순히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제주해녀 공동체와 자신들의 터전인 제주 바다에 대한 정책과 운명을 결정짓는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말이다. 그간 제주 해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과거로부터 제주해녀는 불턱이라는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민주적 회의와 투표를 통해 모든 의사 결정을 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문화인 불턱회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형으로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제주해녀가 직능대표로서 직접 국회의원에 출마해 보면 어떨까? 단순히 제주해녀의 직능대표가 아닌 우리 전통문화의 대를 잇는 모든 전통직종의 대표로서 말이다. 제주해녀는 전통직종이 현대사회와 공존하며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제주해녀는 2015년 우리나라 첫 국가중요아업유산으로 지정됐고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으며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제주해녀문화가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필자로서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사진작가 채승우의 '한 사회가

전통을 재현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해녀문화를 본격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결국 제주해녀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의 재확인이자 반증이기 때문이다. 해녀는 문화이기 이전에 직업이다. 지금까지는 제주해녀를 운명으로 감내한 해녀어머니들의 희생 덕분에 유지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녀 혹은 해남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용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대를 이어 젊은 후계자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이나 근로환경안전 기준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번 3주년을 맞아 제주해녀가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인가 점검해보는 성숙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사설

기대 못미친 문재인 정부 제주공약 이행

임기 후반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관련 공약 이행이 아직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공약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주민 반발과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고 싶다"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비롯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제2공항조기 개항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민들도 대선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지율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자구도로 열린 대선에서 도민들은 전국 득표율(41.08%)보다 많은 45.61%의 지지를 보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득표율로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음을 방증합니다. 그렇지만 대표 공약의 하나인 4·3의 완전한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멀습니다. 희생자 배·보상 등

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시점까지 처리가 불투명 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정부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접근과 비협조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진작부터 대립이 첨예했던 제2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역시 새로운 갈등요소로 떠올랐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문제나 송·배전선로 지정 등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지원도 정부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도민들로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 공약이라고 할 대하거나 실천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동력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의 고삐를 쥐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송 위원장의 쓴소리 새겨들어야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약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균특회계가 늘기는 커녕 거꾸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출신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일(사) 제주 언론인클럽이 주최한 '2019 정기세미나'에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제주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제주계정은 제주도가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중앙에서 가져온 권한으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라고 만든 것인데 지금 보면 될 것 같지 않아요"고 지적하며 "신사업 발굴 등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에 제한이 없는 계정이어서 제주도의 기획·교섭, 새로운 사업 발굴 능력이 갖춰지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게 송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는 제주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주계정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계정에 들어오는 예산이 줄고 있다"며 제주도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송 위원장이 제주도의 분발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균특회계 정부 전체 예산은 2007년 6조5860억원에서 2019년 10조7485억원으로 무려 63% 이상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제주계정으로 배분된 예산은 2007년 3554억원(5.4%)에서 2019년 3395억원(3.1%)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균특회계 예산은 눈에 띄게 늘어난데 반해 제주계정은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따라서 제주계정 예산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등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열린마당

블랙스완처럼 찾아오는 재난을 막아내자



강인규 제주시 안전총괄과

'블랙스완(Black Swan)'은 일상생활의 고요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할 일이 발생해 엄청난 충격과 파급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미국 경제학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미국중시의 허상을 통렬히 파헤친 책을 출간하면서 세계의 경제 영역에서 널리 사용돼 왔다. 그는 원래 검은 색깔을 가진 백조(白鳥)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다가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호수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불가능한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일상에서 소리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같은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지구상의 대기는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지난 100년 동안 평균온도가 0.75℃ 상승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켰다. 이는 곧 기후변화의 원인이 됐고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됐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7년 기준 세계 7위(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한국 순)이며, 앞으로 100년 후는 기온이 1.5℃ 상승한다고 2018년 제48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서 경고하며 각 국가의 강력한 절감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 기차나 대중교통 이용, 쓰레기 재활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안하기 등의 실천을 습관화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개인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금지 등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고충분담이 필요하다. 우리의 실천의지가 더욱 소중하며, 블랙스완처럼 고요히 찾아오는 재난을 미리 대비해야 할 중요한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농민 요구 정부 정책 반영에 힘 보태겠다”

원지사, 농업인의 날 격려사 ○...원회룡 제주도지사가 선거를 앞둔 후보처럼 농업인들에게 때 아닌 공약을 제시하며 분투(?)한다. 원 지사는 1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 원 지사는 제주산 농산물의 민감 품목을 포함 ▷정부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제주형 직불제 시행 ▷제주형 공공급식센터 설립 ▷청년·후계농 육성 ▷농업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조상윤기자 예산안소위, 제주 의원 없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액·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제주출신 의원들이 배제돼 아쉬움.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추천을

받아 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15명을 확정했는데, 예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의 명단에서 탈락.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원 선임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창일 의원이 2015년에 처음 선임된 것이 유일하며, 20대 국회 들어서는 전무. 부미현기자 아이돌봄서비스 한시적 확대 ○...제주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시범·확대 하기로 해 눈길. 시는 저소득층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간제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 제주시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도우미들이 현재 10시간 현장 실습을 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이 완료돼 현장에 배치되면 저소득층 양육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부고
양동근(주)부영그룹 상무·(주)한라일보 감사) 아버지 제주 양공 지의(前 우체국·향년 90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11일 10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11월 13일(수)
▶발인일시: 2019년 11월 14일(목)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실
▶장 차: 한라리 선영
부인 강순경
아들 양동근 며느리 강안삼
동욱 유해자
동립 황미숙
동철 조선단
딸 양애선 사위 김승만
애춘 김창진
애정 강철웅
* 연락처 : 양동근 010-3697-0345
양동욱 010-3699-4895

무연분묘개장광고(1차)
본 분묘는 '당시 당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별첨(1971년 제105호) 부속령'에 따라 서귀포시에서 개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연분묘 개장 광고입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호
분묘 소재지 서귀포시 현신로1584-2 가호 2
2. 개장사유: 토지정리, 재산권 행사 등
3. 개장장소: 신안로 분묘장
4. 개장방법: -인근지역에 있는 경우: 인근지와 합동하여 직결처리
-인근지역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에서 수습 후 무연고 분묘장 안치
5. 광고기간: 최초 광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신고처: 고령지 서귀포시 현신로142번길 110(상효동) (☎ 010-8746-9151)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 064-760-6222
7. 신고시 구비서류: -분묘의 영구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본, 지적도, 등본, 가호, 기타 증명서류 등)
8. 기타사항: 개장광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군)에서 불명분묘나 누락이 후기로 일어난 분묘를 일괄적으로 개장하여 이 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위공고인: 고령지 서귀포시 현신로142번길 110(상효동) (☎ 010-8746-9151)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품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887, 010-5755-88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글게 저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여민'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